

美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효과 '미미'

한국 금융시장 혼조

코스피 지수 '찔끔 상승' ... 환율도 소폭 올라

미국발 헤이트는 크지 않았다. 국내 금융시장은 22일 7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계획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고 금융위기를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 주가·환율·금리 혼조 =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말 보다 4.56포인트(0.31%) 상승에 그친 1,460.34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16.30포인트(1.12%) 오른 1,472.08으로 출발해 한 때 1,490선을 넘보기도 했지만 개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등으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0.6원 상승한 1,140.3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17.90원 급락한 1,120.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117.00원으

로 밀린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45.40원까지 급등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 "급한 불 끊지만 잔불 ... 변동성 지속" =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인 미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고 대규모 구제금융에 따른 미 정부의 재정적자 우려되고 있는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잔불'까지 사라졌다 보기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도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금융경제실

장은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우려로 인해 구제금융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혼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실장은 "1조 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투입할 때 미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도 결국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성봉 삼성증권 연구원은 "오늘 국내 증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금융 위기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1,550~1,600선까지는 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미 정책당국의 긴급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로 국내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물가 구조 '서민들에 불리'

한국경제研, 세계 82개 주요 도시 물가 수준 비교

식료품·의류 등 서민 밀접 생필품값 상대적 높아

우리나라의 물가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식료품과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에게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월 KOTRA와 공동으로 전 세계 69개국 82개 주요 도시에서 일반 품목 217개와 브랜드품목 102개를 대상으로 물가수준을 지수화해 비교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식료품, 의류와 신발류, 이·미용 서비스, 차와 음료, 가사용품과 서비스, 차량 연료 및 운행비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필품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료품 가운데 현저하게 비싼 품목은 밀가루, 쇠고기 등심, 올리브유 등으로 밀가루는 세계 도시 평균의 2.5배, 쇠고기 등심은 4.2배, 올리브오일은 2배나 됐다.

냉동참치, 닭고기 가슴살, 쇠고기 안심, 돼지고기 목살, 양배추, 씨리얼 등도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국내가격이 높은 품목이었고 사과,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 각종 과일류 등은 다른 OECD 회원국들과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비싼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제품 중에서 현저하게 비싼 것은 스타킹, 와이셔츠, 짐바지 등이었고 가사용품 중에서는 치약, 칫솔, 화장비누, 화장지, 섬유유연제 등이 비쌌다.

국내 골프장 그린비는 달러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배로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경연 김종석 원장은 22일 관련 조사보고서 공개와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물가가 매우 비싸다는 통설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결과, 통념과 달리 세계 주요 도시의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물가구조가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IT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의 결과로 교통요금, 주거·수도·광열비, 주류·담배, 통신요금 등은 매우 저렴했고 가구 및 전자제품, 교양·오락, 외식·숙박, 교육 등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가설비는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도시 평균의 24%, 월 사용요금은 30%에 그쳤다.

/연합뉴스

생계형 '소형 화물차' 180만명

내달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 소비세의 환급이 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다면

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 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 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2일 서울 광화문에 LED를 이용해 외벽을 다양한 영상으로 장식할 수 있는 신사옥(메인타워)을 정식으로 개관했다.

/연합뉴스

"금호생명 매각 일정대로 추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2일 금호생명 매각과 관련해 "공표한 것처럼 (상장이든 매각이든)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금호아시아나 본관(메인 타워·사진) 준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증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그룹에서도 대우건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금호아시아나 메인타워는 본관 뒷면 외벽에 LED 소자 6만9천개로 이뤄진 폭 23m, 높이 91.9m의 'LED 캘러리'를 설치해 다양한 영상을 시연하게 된다. 거대한 캔버스처럼 만들어진 뒷면 외벽은 박 회장의 아이디어로 설계됐다.

건축 외장재로는 도예가 신상호의 아트타일 작품이 활용됐고, 로비에는 설치 예술가 존 폴 필립의 작품이 설치됐다.

/연합뉴스

건설업체 채용 '봇물'

경기 침체 불구하고 현대건설·GS건설·동부건설 등

건설 경기 침체에도 주요 건설사들의 대출 신입사원 채용이 크게 늘고 있다.

22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동부건설, 효성건설, 국동건설, 이수건설, 한솔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대거 신규 채용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9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내달 5일까지 면접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 등이다.

GS건설은 29일까지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분야는 플랜트설계, 환경설계, 발전설계 등이고, 동부건설은 내달 10일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효성 건설PG는 그룹공채 형태로

30일까지 신입 사원을 모집하며, 극동건설도 그룹공채 형태로 신입사원을 내달 13일까지 채용한다.

이수건설은 해외사업, 건축, 기계, 토목, 국내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내달 2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한솔건설은 26일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등의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 원서를 받는다.

한화건설도 토목, 건축, 플랜트 등에서 25일까지 대졸 신입사원을 뽑으며, STX건설도 해외 및 국내 주택, 건축, 플랜트사업, 건축시공, 토목시공 분야에서 27일까지 채용한다.

한편 외환은행은 22일 학력, 나이 등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개방형 방식의 7기 열린 공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아 '쏘울(SOUL)' 첫 선

서울 양재동 사옥서 신차 발표회 ... 본격 시판

연간 13만6천대 판매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아차 광주공장의 또하나의 주력차종인 '쏘울(SOUL)'이 일반에 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쏘울'은 스포티지·카렌스와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을 대표하는 트로이카 시대를 열어 내수와 수출시장에 서 행운을 기대하게 했다.

기아차는 22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의환 기아차 부회장, 조남홍 기아차 사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개념 CUV '쏘울'의 신차발표회를 열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기아차는 헤이트는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혁신에致力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젊고 활기 넘치는 디자인이 적용된 '쏘울'은 기아차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30개월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모두 1천900억원을 투입, '디자인 경영의 결정체'로 불리는 '쏘울'을 탄생시켰다.

'쏘울'은 SUV(스포츠 제저 차량) 스

타일에 미니밴의 디자인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CUV (Crossover Utility Vehicle)로, 지난 2006년 콘셉트가 공개되면서 세계 시장으로부터 엄청난 기대와 찬사를 받아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는 이번 신차발표회에 이어 다음 달 파리모터쇼에 참여한 뒤 내년 상반기 유럽과 미국 등 해외시장에 '쏘울'을 선보일 계획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이를 통해 기아차는 연간 내수 3만6천대, 수출 10만대 등 모두 13만6천대(2009년 기준)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는 2009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내달 5일까지 면접 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안전, 사무 등이다.

GS건설은 29일까지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며 분야는 플랜트설계, 환경설계, 발전설계 등이고, 동부건설은 내달 10일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분야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효성 건설PG는 그룹공채 형태로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주)새롬W&P	생산직 타이어 포장용 포장지 생산·제조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24	062-945-9767
주)H&T	주)메카뉴케이션 청구직 설정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9/25	062-350-6333
신한유화(주)	생산·품질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62-944-8486
호남화학(주)	[구매부] 영업부/생산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25	062-419-8171
K.T.C	SK텔레콤 상무 부문장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9/25	062-716-0142
비이오광기기술개발사업단	대학 연구실 연구보조원	대졸/경력무관	1000~1200	09/26	062-530-4916
국일OA산업	경리업무 담당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654-0680
지비씨 주식회사	[소필름] 운영관리/영업지원/미케팅 사원	고			